

# 유럽 시 발생 급증... 국내유입 사전 대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과 아시아의 야생조류에서 AI 발생이 급증하고 바이러스 유형도 다양해져, 이번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유럽과 아시아에서 AI가 유행한 시기에는 철새 이동으로 인해 국내에도 피해가 컸다. 지난 2017년과 2020년 상반기에 유럽에서 가장 유행한 AI 바이러스 유형(형질형)은 그해 겨울철 국내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와 유사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유럽에서 유행한 AI 바이러스가 시베리아에서 모인 철새 간의 교차 감염 후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 동북지역과 몽골 등 철새가 날아오는 국가에서 AI가 발생하면 철새를 통해 국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AI의 경우에 중국 광둥성에서 유행하던 AI 바이러스가 철새 경로를 따라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 올 상반기 발생건수 4배로 증가·바이러스 유형 6종 확대 농식품부,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전부터 취약요인 등 개선

올 상반기 유럽 야생조류의 AI 발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급증했고 8월까지 지속 발생하는 등 AI 발생 기간도 대폭 늘었다. 중국 등 아시아에서는 7개국에서 44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랴오닝성(省)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I 바이러스 유형(형질형)도 다양해졌다. 지난해 유럽에선 H5N8형(1종)만 나왔지만, 올해는 H5N8(80.1%)·H5N1(8.4%)·H5N5(3.9%)형도 검출돼 예년보다 다양한 6종의 AI가 발생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랴오닝성 등에서 검출된 H5N6형(2.3%)과 H5N8(9.3%)·H5N1(2.3%) 등 4종의 AI가 발생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H5N8형과 H5N6형이 동시에 발생했던 2016, 2017년의

경우, 장기기에 걸쳐 대규모 감염(8개월간, 가금농장 419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올 겨울 국내에 다양한 유형의 AI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했던 H5N8형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폐사율이 높고, 닭에서 발생하면 100%에서 소독방역시설 관리 미흡, 기본적인 방역 수칙 미준수 등 관리 소홀 문제가 드러났다.

발생농장의 39%(33호)에서 축사 내 기본 방역 수칙인 방역복 및 전용 장화 착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출입차량·사람에 대한 소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농장도 28%(28호)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검역본부·지자체·생산자단체와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전화·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방역 수칙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 나갈 방침이다.

한 건설팀을 병행 실시한다.

1차 점검 결과, 아직도 많은 농장에서 울타리·내부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방역실·전실 설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흡 농장은 추가 점검을 통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전까지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장은 사육제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과 올해 AI가 발생한 모든 농장(109건)에서 소독방역시설 관리 미흡, 기본적인 방역 수칙 미준수 등 관리 소홀 문제가 드러났다.

발생농장의 39%(33호)에서 축사 내 기본 방역 수칙인 방역복 및 전용 장화 착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출입차량·사람에 대한 소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농장도 28%(28호)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검역본부·지자체·생산자단체와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전화·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방역 수칙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사전 예방조치의 제도화와 현장 중심 방역조치를 위해 전문가·생산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관련 규정과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철새 도래지 예찰과 가금농장 정기검사 등 예찰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에 국내로 유입되는 AI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겨울 국내 야생철새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즉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발생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 및 출입통제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겨울철새를 통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10월 전까지 마다·대인 소독시설, 야생조류 차단망, 방역실·전실 등 소독·방역시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미흡한 시설을 사전에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아이들이 안심할 기후환경 조성 바람

#### 전은 '그린' 환경그림 공모 도내 초등생 누구나 참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전북지역본부장 구미희)은 제1회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그린(Green) 환경그림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 문제에 대해 미래 세대의 어린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지속 가능한 녹색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연 확대를 통해 ESG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공모전은 도내 초등학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8월 도화지에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후환경 조성을 위한 바람'을 소재로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다. 전북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전북은행 본점 방문 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우편발송하면 된다. 총 100명에게 전북은행장상, 전북교육감상 등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전북은행 김경진 부행장은 "기후문제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과 기대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환경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영태 기자

## '수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경진원, 통상 전문가 무료컨설팅

전라북도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이 운영하는 통상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어려움을 함께 해소해 나가고 있다.

통상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애로 해소 및 전문가 활용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수출 전문가가 무역서류 작성, 해외 인증, 해외 물류, 지식재산권까지 수출 전 분야에 걸친 1:1 컨설팅을 매주 수요일 무료로 지원한다.

7월부터 2개월간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화장품·식품 인증 미국 FDA, 유럽 CE, 할랄 인증 수출·통관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이 진행됐으며, 도내 중소기업 담당자들로부터 컨설팅 내용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도내기업 담당자는 "우리 제품이 수출하고자 국가에서 해외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조차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아서 답답했다"며 "이번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명확하게 알게 돼 수출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9월에는 ▲수출신고, 통관, 무역서류 작성 (1일) ▲중국 화장품·식품 위생허가, 라벨링 (8일) ▲국제 물류·해외 운송 (15일) ▲미국 FDA 공장등록, 제품등록 (29일) 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도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가 활용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며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은 전라북도도를 중심으로 도내 13개 수출유관기관의 수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전화 한 통으로 기업에 맞는 수출 지원사업을 통합 안내할 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방문 또는 전화(대표번호: 1644-7155)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과 황등농협은 2일 황등농협 회의실에서 장수시진 촬영, 검안 및 돌보기 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 '어르신들의 무병장수·건강한 노후생활 기원합니다'

### 전북농협·황등농협 '농업인 행복버스' 큰 호응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안전·방역수칙 준수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황등농협(조합장 최사직)은 2일 황등농협 회의실에서 장수시진 촬영, 검안 및 돌보기 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농업인 어르신의 무병장수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기원하는 장수시진 촬영과 눈이 침침해 글씨를 잘 보기 어려운 분들의 위해 검안을 실시하고 돌보기를 현장에서 무상으로 제공했다. 집안에만 머물러 감감함을 느낀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환하게 웃는 시간을 제공하는 행사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 마울별로 20~30명씩 나눠서 입장하고 사전에 안전수칙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20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업인행복버스'는 도서·오지 등 복지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지역으로 찾아가 의료진료, 장수시진 촬영, 검안·돌보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인 행복시대를 선도하는 농업인 실익사업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활력을 잃은 농촌 어르신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어 드린 것 같다"며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잔테크를 응원합니다'

### 'NH샐다치고 적금' 출시 우대금리 1.40%p 포함 총 2.0% 금리 제공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잔테크를 응원하기 위한 특화상품 NH샐다치고 적금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올원뱅크 NH샐다치고 적금 페이지에서 소비와 관련된 아홉가지 아이코를 원하는 이코와 금액으로 설정하고, 소비를 할 때 해당 아이코를 클릭해 입금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매일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서 월단위로 지정할 수 있고 영입점과 올원뱅크 앱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12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0.6%(8월 31일 기준)에 ▲아이콘클릭 입금 횟수 150회 이상(1.2%p) ▲올원뱅크에서 적립된 올원캐디 활용

(0.2%p)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최고 연 2.0%의 금리를 제공한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9월 한 달간 '샐다치고 저축하면 맥북 사드립니다!' 이벤트를 실시한다. 상품 가입 고객 중 아이콘클릭 입금회 1회 이상 실시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애플 맥북에어(2명), BHC 치킨(15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1,000명)을 증정하며, 입금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동시에, 이벤트 페이지에서 저축계획에 관한 댓글을 남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편의점 상품권(500명)을 증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올원뱅크 등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여름 내 계속된 폭염 탓... 신선식품 값 '경충'

### 8월 전북소비자물가, 전년대비 3.3% ↑... 농수산물·공업제품 등 물가 모두 상승

코로나19 여파로 가득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들이 추석을 불과 며칠 앞두고 소비자물가가 경충 뛰면서 근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여름내 계속됐던 폭염 탓에 신선식품 값이 크게 올랐다. 게다가 연이은 제품 가격인상으로 장비구입 물가도 전정부지로 치솟았다. 시금치와 배추 포도는 무려 30% 넘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일 발표한 전북 지역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38(2015년=100)로 농수산물과 공업제품, 서비스 등이 일제히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농수산물은 지난달보다 4.0%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1% 각각 상승했다.

공업제품도 지난달보다 0.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각각 올랐고, 서

비스 또한 지난달보다 0.1%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각각 오르는 등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치솟았다.

특히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보다 0.9%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 중 지난달 보다 오른 품목을 보면 시금치(96.8) 배추(43.3) 포도(35.2) 상추(32.3) 부추(32.9) 깻잎(30.6) 등이 크게 올랐다.

이외 수박(18.7), 호박(16.7), 치약(13.4) 무(11.5) 파(9.7), 비스킷(8.7), 양파(6.7), 토마토(6.4), 자동차용 LPG(5.3), 마늘(3.2), 김치찌개백반 및 된장찌개백반(1.2), 경유 및 휘발유(1.0) 등이다.

반면 떨어진 품목은 풋고추(-6.2), 샐러드(-4.2), 삼육유연제(-3.9), 식용유(-3.1), 당근(-2.7), 부엌용유 및 소시지(-2.0), 바나나(-1.8), 커피(-1.3), 주

스(-1.2), 공동주택관리비 및 헬스케어(-1.0), 스낵과자(-0.9), 우유(-0.8), 쌀 및 기초화장품(-0.3) 등이다.

더욱이 밥상물가도 함께 오르면서 이 물가와 관련된 신선식품지수는 지난달보다 7.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각각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지난달보다 1.0%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각각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지난달보다 5.7%,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30.4% 각각 상승했다.

반면 신선채소류는 지난달보다 13.8% 하락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4%나 치솟았다. /이영태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